

쉽고 재미있다! 어린이 눈높이 미술관

아이들의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갤러리 놀이터에 가라

만질 수 없도록 높게 걸어둔 그림,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작품들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저 심심하고 지루한 장소였던 미술관이 변하고 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쉬운 주제,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도록 낮게 전시한 작품, 쉽고 재밌는 도슨트의 설명이 있는 미술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감상 활동 등도 있어 100%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 어린이 눈높이 미술관, 어디가 있나?

■ 국립현대미술관 내 어린이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2·3층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미술관은 독특한 원형공간으로 이루어졌으며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실기 창작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해 보는 실기 공간으로 어린이만을 위한 곳이다.

‘어린이 미술탐험’, ‘우리가족 미술여행’, ‘장애아동 미술관 소풍’의 프로그램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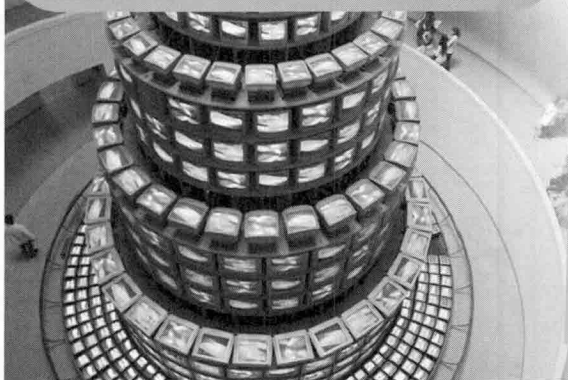
- 관람시간 하절기(3월~10월) :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오후 9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성인 1천원, 청소년·어린이 5백원, 학생증 제시하면 무료관람, 매월 둘째주 토요일 무료관람(기획전, 상설전)
- 위치 : 지하철 4호선 서울대공원역 4번출구에서 20분 간격으로 왕복버스 운행
- 문의 : 02-2188-6000
- 홈페이지 : www.maca.co.kr



어린이미술관 Children's Gallery

어린이미술관에서는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미술관은 어디에 있나요?
국립현대미술관 건물 2층과 3층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 어린이미술관은 언제 세워졌나요?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미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술의 참 뜻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함양하고자 1997년 개관하였습니다.



장흥아트파크

총 면적 300평 규모로 전시 기능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는 공간으로 전시장과 쉼터, 스튜디오 및 정원으로 구성된 어린이 미술관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기발하고 재미있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졌으며, 친절한 도슨트들이 어린이들의 감성교육을 담당한다.

올해 전시 주제는 '예술가와 친구 하기'이다. 만 5살부터 12살을 대상으로 5월 25일까지 문화예술교육 체험 프로그램인 반짝반짝 미술관 체험, 조물조물 만들기 체험, 폴짝폴짝 놀이터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감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음으로 보는 빛—사진, 영상, 손으로 만드는 빛—설치, 움직임으로 느끼는 빛—영상 등을 통해 영상에 대한 감각 체험. 참가비 어린이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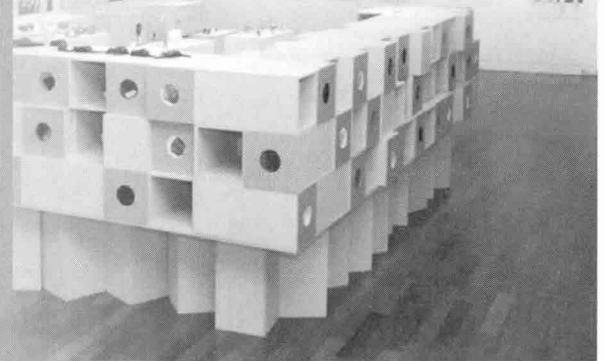
- 관람 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관람료 : 성인(중학생 이상) 7천원,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5천원
- 위치 :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1번 출구 버스로 환승(360번)/국철 의정부 북부역 출구 버스로 환승(360번, 인천행 37번) -> 장흥 농협 하차, 장흥 유원지 방향 도보 10분 거리
- 문의 : 031-877-0500
- 홈페이지 : www.artpark.co.kr



■ 씬크씬크미술관

- 관람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체험 : 9시 50분, 12시, 2시 50분, 5시 하루 4번 체험 프로그램 입장 가능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화요일
- 관람료 : 평일 2만5천원, 주말 3만원(전시와 체험이 포함된 가격), 전시만 관람 - 어른 2천원, 어린이 5천원
- 위치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 -> 강남 등기소 지나 300미터 우측
- 문의 : 02-562-9611
- 홈페이지 : www.thinkthink.net

아이들을 위해 미술적 자극과 감각을 키워주는 미술관. 놀이와 질문을 통해 어린이의 나이별 수준에 맞는 작품 감상을 한 후, 보고 느낀 감각을 미술 작품으로 직접 만들어 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4월 체험프로그램

작가손
Plaster Hand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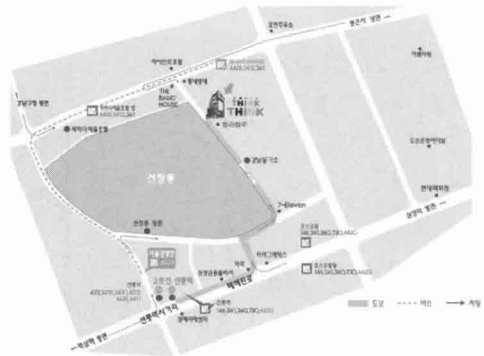
부드러운 흙의 촉감을 느끼며 꾸밈~ 손도장을 찍어 나만의 손자국을 만들어보세요. 그릇을 그려갈 수이 그림이 생기는 순간 내 손은 멋진 작품으로 그려집니다.

플라스에 흔적 접할 수 없으면 이고와 유도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만들어보아요!

재료 : 식고, 유, 실용성 천, 색지, 그릇, 다양한 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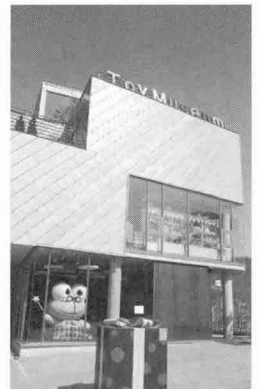
1. 율리하고 흙의 주제를 정하고, 동부 위해 준비하고 다른 여러 사물들을 해체를 한 뒤라 쓰세요.
2. 손바닥과 사물들의 자국이 남여있는 유로 위에 식고를 붓고 활동칠로 고르게 칠합니다.
3. 식고 위에 접착제(아크릴)를 바르세요.
4. 식고와 접착제(아크릴)를 바르세요.
5. 다양한 색상을 한 가지를 골라 배어난 식고를 붙여 완성합니다.



■ 헤이리예술마을

예술가들의 미술관과 박물관, 갤러리 공간을 하나의 마을로 구성한 곳. 국내외 작가들의 기획 및 상설 전시 작품과 야외 조각,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헤이리예술마을은 입장료가 따로 없지만 마을 안의 미술관 및 갤러리 등을 입장할 때는 따로 지불해야 한다. 헤이리아트밸리는 쌈지미술창고, 쌈지어린이미술창고, 아트팩토리 등의 미술관이 있다.

- 위치 : 지하철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버스로 환승(200번)
- 문의 : 031-946-8551~3
- 홈페이지 : www.heyri.net



■ **삼지어린이미술창고**

헤이리예술마을 내에 위치한 곳으로, 6~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체험하는 미술관. 약 6개월에 한번씩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어 진행된다. 헤이리예술마을 홈페이지 참조.

- 관람 시간 : 오전 11시~오후 6시
- 관람료 : <딸기가 좋아> 입장권 소지
자만 가능
- 문의 : 031-957-0720, 06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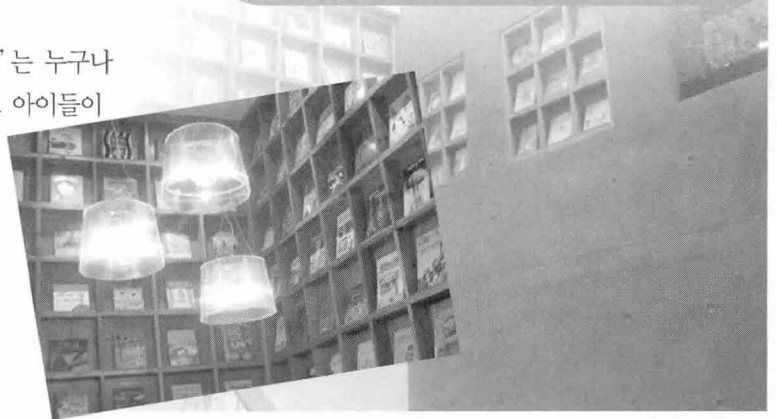


■ **네버랜드 픽처 북 뮤지엄**

경기도 파주 헤이리 아트밸리 내에 위치한 '네버랜드 픽처 북 뮤지엄'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 보아오던 동화 속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 미술관은 세계 각국의 희귀한 그림책을 모아 전시하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추억을 불러일으켜 준다.

갤러리 한편에 위치한 '키즈 북 라운지'는 누구나 한번쯤 꿈꿔 봤을 법한 그림 같은 서재로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는 그림책과 동화책, 어린이 소설을 비롯한 4000여 권의 다양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어 원하는 책을 마음껏 골라 볼 수 있다.

- 관람 시간 : 오전 11시~오후 8시(월요일 휴관)
- 입장료 : 어린이(4~16세) 3천원, 일반 4천원
- 위치 : 파주 헤이리 아트밸리 내 '아티뉴스'
건물 지하 1층
- 문의 : 031-948-1028
- 헤이리예술마을 홈페이지 참조



■ 하늘을 나는 코끼리

- 관람 시간 : 오전 11시~오후 7시(일요일 휴관)
- 관람료 : 입장료 무료(체험비 별도)
- 위치 : 지하철 2호선 잠실역 5번 출구 버스로 환승(3315번) -> 잠실병원 하차 맞은편 기업 은행 3층
- 문의 : 02-414-5476
- 홈페이지 : <http://blog.naver.com/iss003>

이름에서 느껴지듯 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갤러리를 지향하는 곳. 이곳은 전문가가 아닌 누구라도 작가가 될 수 있는 꿈의 공간이기도 하다. 매년 방학 시즌이 되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돋보이는 어린이 작품전이 열리며 그 외에는 공모전을 거친 젊은 신진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전시된다. 설치, 회화, 벽화 등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하게 구성된 전시 작품들에서는 신선하면서도 새로운 시도성이 엿보인다. 게다가 전시 작품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비교적 낮게 설치 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다.



■ 아트 스테이션(ART STATION)

- 관람 시간 : 오전 10시~오후 6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 입장료 : 3세~만6세 어린이 무료, 성인 1천원 (체험비 별도, 기획전 변경 가능)
- 위치 :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6번출구 역사 내
- 문의 : 02-466-2606
- 홈페이지 : www.artstation.co.kr

서울 어린이대공원 역사 안에 문을 연 작은 갤러리 '아트 스테이션'. 공연·예술 단체인 'KoPas'와 함께 하는 '아트 스테이션'은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갤러리다.

아이들을 위한 작품부터 어른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주로 하며, 작품 감상 후 이루어지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작품에 대해 공감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트 스테이션'은 만들기, 마임, 율동과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체험과 놀이에 중점을 둔 어린이 창작 활동 연구소이자 통합형 예술 교육 마당이다.



Tip

어린이 눈높이 미술관, 이렇게 관람하세요!

☞ 미술관 선택은 아이에게 맡기세요

대부분의 어린이 눈높이 미술관은 도슨트가 몇 명의 아이들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엄마와 떨어져서 미술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안해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술관 선택을 처음부터 아이에게 맡길 것.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기 때문에 책임감과 흥미를 느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 입장 전, 미술관 매너를 약속하세요

아이의 키와 비슷한 높이에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쉽게 만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장하기 전 미술관에서 지켜야 할 간단한 매너를 약속하고 들어가자.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백남준 선생님이 힘들게 완성한 작품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지?” “착한 어린이는 미술관에서 뛰어다니지 않겠지?” 등 스스로 자신과 약속하여 주의할 수 있게 지도한다.

☞ 아이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아이를 위한 작품이라고 모두 쉬운 것은 아니다. 책 속에 수도꼭지가 달린 작품이 있는가 하면, 눈만 동그랗게 그려 놓은 그림도 있다. 그냥 재밌는 작품이거나 지나치지도 말고 “왜 저렇게 그렸을까” “너라면 어떻게 그렸을까” 등 아이와 함께 작품에 대해 고민해 보자. 엄마가 먼저 작품에 대한 감상 운을 떼면 아이도 덩달

아 궁금해하고 재미를 갖게 된다.

☞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작품을 선택하라

이슈가 되는 유명한 작가전이라 해서 무작정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예술에 대한 거부감을 안겨줄 뿐이다. 동네의 작은 갤러리라도 좋으니 아이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전시를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

☞ 전시에 관한 사전 조사를 하라

방문할 갤러리의 성격과 작품에 관해 미리 알고 가는 것은 기본. 아이들은 책이나 인터넷으로 미리 접해 본 작품에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된다. 전시와 관련된 서적을 준비해 갤러리의 작품과 비교해 가며 감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

☞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감상하라

작품을 감상한다고 전시관을 허겁지겁 도는 데 급급한 관람은 아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작품에 관한 의문점을 아이와 함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람 태도. 아이들은 집중력이 약하고 부산하기 때문에 관람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 반복 학습을 하라

한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녀온 전시관의 도록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작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 느낀 점을 일기로 쓰게 하거나 작품에 사용되었던 재료를 사용해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 ㉮

[출처 : 여성중앙]